

 천주교 서울대교구 구로3동 성당 주보성인 : 프란치스코 살레시오 08375 구로구 디지털로 27길 82 www.guro3cc.com ☎ 사무실 857-8541~2 팩스 857-8549	주 임 신 부 보좌 신 부 전 교 수 녀 총 회 장 연령회 총무	정 재 준 사도요한 정 혁 요셉 (청년부) 이 춘 섭 미카엘 (유·초·중·고등부) 박 경 석 보스코 수사 (사회사목) 정 은 자 한나 (원장) 이 민 자 미란다 (중·고등부/청년부) 정 정 아 소화데레사 (유·초등부) 황 태 영 프란치스코 옥윤필 마티아 010-5117-5564
---	---	---

본당 설립 60주년 전 신자 성경 통독 봉헌 (2022. 3. ~ 2023. 9. 30)

● 전입교우 만남의 시간 (1월 전입)

- 일 시: 2월 26일(일), 교중 미사 후
- 장 소: 1교실
- ※ 각 구역·반장님은 연락하시어 함께 참석하시기 바랍니다.

구역 반	성명	세례명	이전 본당
1구역 2반	김일환	보나베틀라	춘천교구/초당
2구역 3반	오경숙	아셀라	서울대교구/구로2동
14구역 2반	김준섭	도미니코	춘천교구/포천
	박하늬	세실리아	서울대교구/영동
18구역 2반	이남식	요셉	서울대교구/당산
23구역 4반	황옥자	아가다	수원교구/상대원

● 십자가의 길 (월~금요일 아침, 저녁)

- 사순 기간 동안 매일 아침(05:50) '십자가의 길' 전례 담당은 전례 봉사자가 합니다.
- 저녁(18:20)에는 담당 구역에서 합니다.
- *십자가의 길 전례 담당 구역*

2/27(월)	2/28(화)	3/1(수)	3/2(목)	3/3(금)
사목위원	2구역	3구역	4구역	5구역
3/6(월)	3/7(화)	3/8(수)	3/9(목)	3/10(금)
6구역	7구역	8구역	9구역	10구역
3/13(월)	3/14(화)	3/15(수)	3/16(목)	3/17(금)
11구역	12구역	13구역	14구역	15구역
3/20(월)	3/21(화)	3/22(수)	3/23(목)	3/24(금)
16구역	17구역	18구역	19구역	20구역
3/27(월)	3/28(화)	3/29(수)	3/30(목)	3/31(금)
21구역	22구역	23구역	24구역	1구역
4/3(월)	4/4(화)	4/5(수)		
2구역	3구역	4구역		

● 모임

단체명	일시	장소
성체분배자회	2월 26일(일), 교중 미사 후	성체조배실
성모성심회	3월 4일(토), 17:30	강당
위령봉사회	3월 5일(일), 11:40	강당
M.E.	3월 5일(일), 11:50	6교실
제대헌화회	3월 7일(화), 10:30	2교실
임원 모임	3월 8일(수), 20:00	식당

● 성시간 및 성체강복

- 일 시: 3월 3일(금), 저녁 미사 후

● 첫 토요일 성모 신심 미사

- 일 시: 3월 4일 / 오전 6:30
- 미사에 참석하신 분들에게 '도움이신마리아' 장엄 강복 및 성수 예식을 합니다.

● 알림

- 오늘은 오라토리오를 위한 2차 헌금이 있습니다.
- 3월 10일(금) 지역별 병자영성체가 있습니다.

● 사순시기 준비

- 사순실천 봉헌(사순저금통) 및 판공성사표 배부 안내
- 구·반장님은 사순실천 봉헌(사순저금통), 판공성사표를 구역·반에 나누어 주시고, 5지역(구역외) 신자는 사무실에서 받아 가시기 바랍니다.
- 사순실천봉투는 04월 08일(토) 부활 성야 미사 때 개별적으로 봉헌합니다.

● 사순 특강 (목요일 저녁 20:00)

일자	제 목	강사
3월 9일	미니멀 기도와 장미의 이름	김상윤 베드로 신부님
3월 16일	영적 성장의 비밀	

● 사순시기 추천 도서

- 도서명: '주님과 함께하는 10일의 밤'
'내 마음의 주치의', '가시 속의 장미'
- 성물방에 준비되어 있습니다.

본당 동유럽 성지순례 모집

- 순례기간: 2023.4.19.(수)~4.27(목) 8박 9일
- 순례나라: 체코, 헝가리, 오스트리아
- 순례비용: 약 395만원
- 모집인원: 총 35명, 선착순 마감
- 계 약 금: 50만원
- 계좌번호: 국민 270901-04-110864 한희숙
- 문 의: 한희숙 유리아나 010-3053-3315

● 다음 주일(3/5) 국수잔치 및 청소 담당

국수잔치	2구역	청 소	19구역
------	-----	-----	------

● 우리들의 정성(2월 15일 ~ 2월 21일)

교무금	5,919,000원
주일헌금	5,188,100원
감사헌금	이미자100만원 조정현32만5천원 정준호5만원 윤○○ 5만원 이병남10만원 심점순 5만원 최태현20만원 이순규10만원 김종란20만원

● 교중미사 전례봉사자 명단

월 일	해설	복사	독서
2/26	최경희	신종구	도현만 김덕영 구민서
3/5	손진희	조홍환	최상림 신광수 한인혜

● 성체 분배자 명단

월 일	토요주일	06:30	10:30	12:00
2/26	최승일	이운영	옥윤필 김광수	김인기
3/5	최영만	박승환	손상민	김인기 박형순



교무금 입금 계좌번호: 우리은행 129-05-001894 예금주: 천주교 서울대교구 유지재단
(※ 입금인은 교무금 책정자 이름으로 적어 주세요.)

“모든 형제들” - 형제애와 사회적 우애에 관한 프란치스코 교황 성하의 회칙

258. 그리하여 겉으로는 인도주의와 방어나 예방 차원이라는 온갖 구실을 내세우고 정보 조작도 서슴지 않으며 쉽게 전쟁을 선택하는 일이 일어납니다. 실제로 최근 수십 년 동안 일어난 모든 전쟁은 어떤 ‘정당성’을 내세웠습니다. 『가톨릭 교회 교리서』에서는 무력을 통한 정당방위의 가능성을 이야기하며, 이를 위한 전제는 “도덕적 정당성의 엄중한 조건들”이 있음을 입증하는 것이라고 하였습니다. 그러나 이 가능한 권리와 관련하여 지나치게 폭넓은 해석에 빠지기 쉽습니다. 그리하여 “예방을 위한” 공격이나 “제거되어야 할 악보다 더 큰 악과 피해”를 수반하지 않을 수 없는 전쟁 행위조차 부당하게 정당화하려 합니다. 문제는 핵무기, 화학무기, 생물학 무기의 개발뿐만 아니라 새로운 기술이 제공하는 방대하고 증가된 가능성 때문에, 전쟁이 많은 무고한 시민들에게 타격을 끼치는 통제 불가능한 파괴력을 얻게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실제로 “일찍이 인류가 이 정도의 힘을 지닌 적이 없었습니다. ……그 지혜로운 활용이 보장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더 이상 전쟁을 해결책으로 생각할 수 없습니다. 십중팔구 전쟁의 위험은 언제나 그 기대 이익을 훨씬 능가하기 때문입니다. 그러한 현실에 직면하여 오늘날에는, ‘정당한 전쟁’의 가능성에 관한 논의를 위하여 지난 수 세기에 걸쳐 발전되어 온 합리적 기준들을 지지하기가 매우 어렵습니다. 더 이상 전쟁은 안 됩니다!

259. 세계화의 진전과 더불어, 특정 지역을 위한 즉각적이거나 실질적인 해결책으로 보일 수 있는 것이, 여러 차례에 걸쳐 은밀히 자행되는 일련의 폭력적인 요소들을 조장한다는 사실도 밝히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러한 일련의 폭력적인 요소들은 결국 지구 전체에 타격을 입히고 또다시 미래의 새롭고 더 치명적인 전쟁으로 나아가는 길을 열어 줍니다. 현대 세계에서는 이제 국지전의 ‘단편들’만 있는 것이 아니라 ‘산발적인 세계 전쟁’을 경험하고 있습니다. 이제 국가들의 운명은 세계 무대 안에서 서로 긴밀히 연결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260. 요한 23세 성인께서 말씀하신 대로 “전쟁이 침해당한 권리를 회복하기 위한 적절한 수단이라고 하는 것은 이미 불합리합니다.” 요한 23세께서는 중대한 국제적 긴장의 시기에 이를 확인하심으로써 냉전 시대에 널리 퍼져 있던 평화에 대한 큰 열망을 외치셨습니다. 그분께서는 평화의 명분이 모든 개별 이해타산이나 무기 사용에 대한 모든 신뢰보다 더 강하다는 확신을 다지셨습니다. 그러나 미래에 대한 전망이 부족하고 우리의 공동 운명에 대한 인식이 공유되지 않았기에, 냉전 종식이 가져다줄 기회들에 대해서 사람들은 온전히 가능할 수 없었습니다. 반면에 사람들은 보편적 공동선에 대한 책임감 없이 개별 이익만 추구하고 말았습니다. 이로써 전쟁의 음흉한 망령이 활개 칠 새로운 길이 만들어졌습니다.